

책에 질린 사람들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학

작년 언제인가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30여년 가까이 못만난 터라 서로들 몹시 반가워했고 즐거운 옛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가구 대리점을 하여 크게 성공했다는 한 친구가 진지한 태도로 물었다.

“아, 너 정말로 책 읽는 게 좋아서 읽냐? 아니면 지겹지만 억지로 읽는 게냐?”

그 친구는 대학교수인 내게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제껏 신문과 주간지 이외에는 한 권의 책도 사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 지겨운 책을 왜 보겠느냐고 내게 동조를 구하기까지 했다.

자식들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고, 한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탄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중산층 중년 가장들의 독서문화를 확인한다.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 주체인 30, 40, 50대의 중년층 가장들의 문화수준과 여가유형이 독서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구매력이 강한 집단이 독서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성대고 있으니, 책이 팔릴 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방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법하건만, 팔리는 책이라는 게 실상은 거의 전부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참고서일 뿐이다.

중·고등학교 때 학습참고서로 공부에 진저리를 친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책읽기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학습참고서 아닌가? 책읽기에 질려 있는 어릴 적 내 친구도 실상은 학교시절 학습참고서에 질려 버린 많은 희생자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는 독서에 습관을 들이게 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알게 하여, 평생토록 책을 읽으며 살아가는 열망을 심어주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책에 질리게 하여,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책을 무엇하러 보느냐는 철저한 독서 거부증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역불가했으며, 그 양상은 해를 거듭해 더욱 악화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육의 패행성은 바람직한 독서문화의 형성을 억압하고 파괴시켜온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5·31 교육개혁 조치는 이런 문제의 해결에 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불행하게도 그런 낙관적 기대를 하지 못한다. 오히려 독서문화를 더 근원적으로 파괴할 요소를 더욱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성적 경쟁을 부채질할 반교육적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5세 조기 입학제도, 속진제와 월반제, 조기 졸업제 등의 배후에 깔린 논리는 무엇인가? 학교공부에 더욱더 학생을 얹어매 놓고, 오로지 그것에만 전념하여 좋은 성적을 올린 학생을 일찍 입학시키고 월반시키고, 일찍 졸업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자면 학습참고서에 질리는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5·31 교육개혁 조치는 길게는 오히려 학습참고서 시장의 확대에 연결될 것이며, 그 대신에 책에 질려서 독서 거부 신드롬을 보일 성인들의 숫자는 더욱 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 | | |
|------------|----|--|
| 표지 인터뷰 | 2 | ‘고전의 거울’ 통해 본 학문적 사유 교회 맞아 세권의 기념저서 출간한 이우성 교수 |
| 초점 | 4 | 출판 유통구조에 새로운 변화 바람 (주)한국출판유통 출범, 보문당과 청운의 합병 등 재편 움직임 |
| 얼굴 | 5 | (주)한국출판유통의 지배주주로 나선 윤석금 회장 |
| 진단 | 6 | 아직도 출판계 주변에 맴도는 일제용어들 편집·인쇄 등 출판 전반에 걸쳐... 국적 불분명한 용어들 |
| 통계 | 8 | 우울증에 시달린 '95 상반기 출판가 발행종수 줄고 부수는 증가... 과잉공급으로 업계 고통 자초 |
| 세미나 | 9 | 세계화·정보화 물결 속의 출판 미래 |
| 특집/양케트 | 10 | 한여름에 읽을 만한 추리·SF 걸작 매니아 9인이 추천하는 명작들 김동광/박상준/안정희/박광규/이신우 최현준/박인홍/박덕규/김연수 |
| 출판화제 | 14 | 동양고전의 으뜸 '주역' 본격연구서 활발 |
| | 15 | 컴퓨터·경제 실용서가 잘 팔린다 |
| | 16 | 질높은 '테마여행' 안내서 필요하다 |
| | 17 | 컬러시대 새 문화 일궈내는 '색채이미지' |
| 신간읽기 | 18 | 월북화가 이쾌대의 예술인생과 작품세계 |
| 해외탐방 | 19 | 만화산업의 가능성 연 국제 페스티벌—한창완 |
| 책과 사상 | 20 | ‘지적 테러리스트’의 새로운 문화읽기—김성곤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 |
| 책 뒤에 선 사람들 | 22 | 십사년째 종로서적에 근무하는 이선우계장 |
| 에세이 | 23 | 책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자유—나희덕 |
| 서평 | 24 | 이종석 《조선노동당 연구》—박명림 |
| | | 염무웅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김형수 |
| | 25 |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와 근대성》—오성호 |
| | 26 | 송두울 《역사는 끝났는가》—윤평중 |
| | | 배리 스마트 《현대의 조건, 탈현대의 쟁점》—이기현 |
| | 25 | 베트코크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디오 예술》—이승건 |
| | |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최정일 |
| 이 책 그 사람 | 28 | 《파자이야기》 펴낸 홍순래씨 《포철 같은 컴퓨터회사를 가진다면》 펴낸 이광형씨 |
| | 29 | 《우마차 타고 핸드폰 든 중국》 펴낸 김병추씨 《한없이 길고 사소한 그리움》 펴낸 원재길씨 |
| 세계의 출판 | 30 | 미국인 모습 그린 ‘가장 미국적인 소설’·외 |
| | 34 | 신간안내 / 44 새로운 책 |

표지 사진/김지욱

칼럼

본지 7월 20일자 쉽니다.

95년 7월 20일자로 발행될 예정이던 《출판저널》 제 174호는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8월 5일자로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